

충북지역 랜드마크 설화 연구*

이효순** · 오세정***

<차 례>

1. 서론
2. 지역과 밀착된 지표기호로서의 전설
3.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설화’로서의 전설
 - 1) 기존 랜드마크 설화 선정 사례 분석
 - 2) 랜드마크의 개념과 의의
 - 3) 랜드마크 설화의 특성과 충북지역 설화 분석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로컬의 가치를 탐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역문화로서의 전설을 연구하고 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역 문화 연구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문화 연구 방법론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기 위해 사건 기호학의 ‘지표성’ 논의와 건축공학에서의 ‘랜드마크’ 이론을 활용하여 ‘랜드마크 설화’를 설정하고 실제 지역을 대상으로 랜드마크 설화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랜드마크 설화란 지역 전설을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지인 랜드마크로 보는 용어로, 지역의 특성을 담은 텍스트임을 부각시키는 용어이다. 랜드마크 설화는 가시성, 특이성, 사회성, 응집성, 군집성의 다섯 가지 특성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텍스트가 지닌 랜드마크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야만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랜드마크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가시성, 특이성, 사회성이 랜드마크 설화의 1차적인 요건이 된다.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19)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주저자: 이효순,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오세정,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표성과 랜드마크 설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북의 대표 전설 자료집인 『전설지』 소재 텍스트들을 검토하여 충북의 11개 시군 각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설화를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 충북지역, 전설, 랜드마크, 랜드마크 설화, 지표성, 지역성

1. 서론

글로벌의 가치가 커질수록 동시에 로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탐색되어 왔다. 최근 국문학 연구에서는 지역학 연구의 하나로 지역 문학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¹⁾ 지역 문학연구는 특히 지역민이 생산·향유·전승해온 구비문학이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최적화되어 있다.²⁾ 지역

1) 현대문학 연구영역에서는 지역의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지역문학학회에서는 『한국지역문학연구』라는 학술지를 간행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문학연구 학회나 연구소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성과 관련한 문학연구를 종종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제주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성과 관련한 문학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배출하고 있다. 고전문학의 경우 최근 충청북도에서 지역의 고전문학 연구를 표방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다. (“고전문학으로 지역을 읽다: 충북의 로컬리티에 대한 문학적 탐색(2018~2020)).

2) 구비문학은 특정 지역에서 생성되고 전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역별 구비문학 연구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었다. 특정 지역의 설화나 민요, 무가 등에 관한 개별 연구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뿐 아니라 설화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거나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또는 관련 연구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명환, 『현대의 지역축제와 전설-강원도 영월지역의 ‘단종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189~215쪽.

서해숙, 『지역전설의 문학적 판타지와 문화 읽기-전남 보성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14, 태민국학연구원, 2014, 161~190쪽.

오세정·조택희, 『지역 설화 인식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화 방안 연구』, 『우리말글』 75, 우리말글학회, 2017, 353~382쪽.

윤순준, 『설화의 지역적 특성 연구와 설화문학지도: ‘231-1 모르면서 짐장으로 성공’ 유형의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5, 동국대학교 학국문학연구소,

과 밀착된 구비문학 중 전설(傳說)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비교적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데에서 중요성과 가치가 매우 크다.

오늘날 문화산업의 발전과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지역의 이야기 문화자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지역의 전통 문화산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충북지역에서 전승되는 지역의 설화, 즉 전설을 문화산업화 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연간 경제적 가치를 도출한 사례가 있다. 해당 논의는 충북 지역민에게 있어서 지역의 전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대략 연간 2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³⁾

이렇듯 지역 문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향상되었지만 정작 지역 문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이라는 특정 지역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른바 ‘랜드마크(landmark) 설화’를 설정,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지역 설화에 대한 조사의 기준안과 분석의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전설 자료집인 『전설지』⁴⁾를 대상으로 하여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017, 39~80쪽.

3) 오세정·조택희, 『지역 전통 이야기 문학의 문화적 의미와 경제적 가치-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148쪽.

4) 충청북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설지』, 1982.

지역 전승 설화자료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1980년대부터 행해지고 있는 『한국구비문학대계』 간행이 이정표가 된다. 다만 1980년대 간행된 해당 자료는 지역별 조사의 편차가 심한데, 충북지역의 경우 충주·증원, 청주·청원, 단양, 영동 4개 지역에서만 자료가 채록되어있으며, 해당 지역의 전설이라고 할 만한 것은 고작 30편에 불과하다. 오세정, 『충북지역 전설 연구: 자료, 분류, 분포의 특성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192쪽.

반면 『전설지』의 경우 지역의 증거물을 바탕으로 전승된 충북지역 전설 620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도시화가 크게 진전되지 않은 1980년대에 지역 주도로 조사·채록한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된 문화자산 자료집이라고 할 수

우선 충북지역의 지역성을 잘 반영한 설화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사진기호학의 지표성 논의를 토대로 하여 유형화를 시도할 것이다. 전설이 갖는 지시대상과의 지표적 관계(indexical relationship)는 지역의 수많은 전설의 전체적인 윤곽과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전설이 가진 지역과의 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건축학, 도시공학 등에서 논의된 ‘랜드마크’에 관한 성과를 활용할 것이다. 관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랜드마크의 개념 및 정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랜드마크 설화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된 랜드마크 설화는 그 지역의 공간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생활방식 등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특색, 곧 지역성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상의 지표성 활용 분석들과 랜드마크의 개념 및 속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랜드마크 설화의 자질을 분석하고, 충북지역을 대표하거나 이정표가 되는,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랜드마크 설화를 선정 및 분석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 각 시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설화를 선정하기 위해 인문학적 시각뿐만 아니라 융합적 시각을 활용하여 지역의 설화 연구, 나아가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역 문화자산으로서의 전설의 정체성을 새롭게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이루어진 지역 대표 상징물이나 지역 문화산업 개발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목차에 드러난 편수로는 503편이지만, 간혹 하나의 제목에 한 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달린 것이 있다. 이들을 각각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보면, 총 수록 편수는 620편이다.

오세정(2016), 앞의 논문, 192~195쪽.

2. 지역과 밀착된 지표기호로서의 전설

전설은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며, 해당 지역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다고 믿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갖는 이야기이다. 특히 전설의 정체성은 전설이 생성되고 전승되는 지역의 증거물을 직접 지시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전설 텍스트를 증거물, 즉 지시대상에 대한 지표 기호로 볼 수 있으며, 전설과 지역의 지표적 관계를 중심으로 전설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참고할 수 있는 논의가 사진기호학의 접근 방식이다. 최근 사진기호학에서는 피사체에 대한 지표적 관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확히 말해 사진을 ‘지표적 자질(caractère indiciel)’을 가진 기호로 파악하는 것이다.⁵⁾ 많은 연구자가 사진기호와 피사체가 갖는 관계인 지표성(지표적 자질)을 유형화하고 개념화하였다.⁶⁾ 명칭과 분류에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상과 기호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이 갖는 특이성을 드러낸다거나, 존재에 관하여 증명한다거나, 인과성 또는 요인성을 갖는다는 등의 개념을 유사하게 함축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지표성을 중심으로 전설의 유형론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전설은 ‘증명성’, ‘인과성’, ‘유일성’, ‘환기성’, ‘강조성’, ‘지속성’의 6

5) 이경률, 『현대 예술사진에 나타난 지표성과 그 존재론적 연구-퍼스의 지표론과 생성 존재론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33, 한국기호학회, 2012, 320쪽.

6) 뒤바(Philippe Dubois)는 사진과 대상이 맺는 지표적 관계를 가장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관성(connection physique)’으로 보았다.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사진이라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진의 지표성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유일성(simularité)’, ‘증명성(attestation)’, ‘지칭성(désination)’을 들었다.

필립 뒤바, 이경률 역, 『사진적 행위』, 사진마실, 2005, 78쪽.

소네슨(Göran Sonesson)은 ‘연속성(contiguity)’, ‘요인성(factorality)’, ‘인과성(causality)’으로 유형화하였다.

Göran Sonesson, “Post-photography and beyond: From mechanical reproduction to digital production”, *Visio*. 4(1), 1999, pp. 11~36.

주형일, 『사진의 지표성과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50(1), 2006, 371쪽.

가지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⁷⁾

한국 전설의 경우 대상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많은데, 일차적으로 어떤 대상이 최초로 생겨났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대상이 새롭게 생겨난 이유가 드러나는 전설은 해당 증거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전설이 갖는 지표성을 ‘증명성’이라고 칭한다.

대상의 탄생에 대한 논리적 관계항을 고려하면, 이미 존재하던 대상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전설 또한 존재한다. 주로 전설이 특정 대상이 존재하다가 사라지게 된 원인을 주요하게 다룬다. 이는 곧 전설에서 다뤄지는 사건으로 인해 관련한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설의 지표성은 대상이 사라진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하기에 ‘인과성’이라고 한다.

대상의 일차적 존재와 소멸이 아닌, 이미 존재하던 대상에 새로운 의미나 인식이 부가되면서 대상이 재탄생하게 되는 전설이 있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본래 존재하던 증거물이 해당 사건 이후 새롭게 명명되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가치나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이미 존재하던 대상에 이름 또는 의미가 새롭게 부여됨으로써 특정한 새로운 성격이 생겨나고 각인되어 다른 대상과 구별된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전설의 경우 ‘유일성’의 지표성이 있다고 본다.

앞의 세 가지 지표성은 대상의 존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전설에서 찾을 수 있는 성격이다. 이와 달리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혹은 대상의 특정한 성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설이 있다. 이 경우 전설은 증거물을 지시하면서 ‘그것이 존재함’ 그 자체를 드러내거나, 대상이 갖는 주요한 속성 중 특정한 의미나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전설의 지표성은 ‘환기

7) 오세정, 「지표성으로 본 한국 전설의 유형론」, 『구비문학연구』 54, 한국구비문학회, 2019, 49~59쪽.

이후 소개하는 전설의 지표성 유형은 이 글의 내용을 따른다.

성'이라고 한다.

수많은 전설 가운데 신이함이나 영험함, 비극성이나 희극성 등 대상이 갖는 특별한 성격에 초점을 맞춰 형성된 이야기들이 있다. '환기성'처럼 대상과 관련해서 전형화되거나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성격을 '환기(喚起)'하는 차원이 아니라 증거물의 특이한 자질을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성은 '강조성'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환기성에 비해 훨씬 개별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밖에 증거물과 관련한 행위나 인식 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전설이 있다. 의례나 풍속을 증거물로 삼는 전설에 특히 잘 나타나며, 이 경우 비록 물리적인 증거물이 희미하거나 부재하더라도 과거에 형성된 것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전설의 지표성을 '지속성'이라고 부른다.

이상의 여섯 가지 지표성이 충북지역 전설에 분포하는 양상은 아래 도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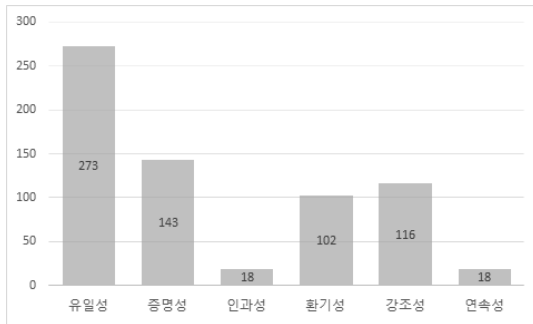


그림 1 충북지역 전설의 지표성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설지』에 전하는 충북의 전설에는 여섯 가지 지표성 가운데 유일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증명성, 환기성, 강조성이 다수 드러난다.⁸⁾ 유일성과 증명성이 높은 이유는 지역 전설

이 갖는 보편적 특성인 지역의 자연, 문화 환경에 대한 유래나 특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하기 때문이다. 충북지역은 산간지형이 발달한 편으로 산을 비롯하여 고개, 암석 등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많이 전승된다.⁹⁾ 이런 자연물 전설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 존재의 발생 근원이 어떠한지, 또는 그러한 대상들이 지역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형상화한다. 누정(樓亭), 절, 탑 등 각종 건축물을 비롯하여 다리, 저수지 등 유적물과 관련된 전설에서도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유래를 살피거나, 그 대상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주된 관심사로 작용한다.

충북지역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자연물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특히 충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¹⁰⁾ 속리산이 위치한 보은의 경우에도 많은 자연물 대상을 미화하거나 관련한 인물을 소환하여 의미를 강화하는 전설이 많이 전해진다. 이밖에 충북의 지역적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충주의 중앙탑이나 탄금대, 각종 전란과 관련된 산성(山城)들, 제천의 의림지 등 대상들의 존재 유래와 특성에 초점이 맞춰진다.¹¹⁾ 영동은 충북의 최남단으로 이 지역은 삼국시대 접경지로서 강렬했던 기억이 지형

8) 충북지역 전설에 나타난 지표성을 전부 헤아려보면 『전설지』에 수록된 전설의 수보다 많다. 이야기는 다양한 의미의 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전설 안에 한 가지 이상의 지표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설지』에 수록된 충북지역 전설은 최소 1가지에서 최대 3가지의 지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9) 충북은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에 둘러싸여 있어 대부분 지역이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서쪽에 비교적 넓은 평지가 발달하여 있으며, 북쪽은 한강, 서쪽은 금강 유역에 속한다. 충남 지역은 비교적 넓은 평야가 형성되었다면 충북지역은 산악이 발달하였다. 충북지역은 농사를 짓고 살기에는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산세가 험하거나 높은 산이 발달하지는 못하였다.

10) 충주에는 지역에 분포한 산을 중심으로 많은 전설이 전승된다. 개천산(開天山), 천등산(天燈山), 용산(龍山) 등 충주지역 내 산을 배경으로 한 전설이 많다. 수주팔봉(水周八峰)은 지역의 빼어난 자연환경으로 이름이 높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전설을 생성하였다.

11) 중앙탑 관련 전설들은 대상의 유일성을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 곧 한반도의 중앙이라는 특성과 결부시켜 의미화하고 있다.

및 지역의 자연물 전설에 고스란히 남아 전한다.¹²⁾

환기성은 역사적 인물에 관한 이야기에서 주로 나타난다. 충북지역의 대표적 인물로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장수인 온달,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 임진왜란의 비극적 영웅 신립, 조선 후기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 등이 있다. 이밖에 이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물의 일화 또한 전해진다. 청주(청원군) 초정리 약수터에 행궁을 온 세종대왕, 보은 속리산에 행차한 세조, 충주에 피난한 조선의 마지막 왕후 민비 등의 이야기는 해당 지역이 어떤 유명인과 어떠한 인연을 어떻게 맺었는지를 환기시킨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닌, 즉 지역의 일반 백성이 전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비록 공식적인 역사서, 문헌 기록 등에서 자취를 찾기 힘들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각인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빼어난 자연환경이 부재하거나,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도 흔치 않은 지역에서는 주로 지역민 중 공동체의 가치관을 실현한 인물을 지역의 대표격으로 내세운다. 음성이나 옥천이 대표적인데, 이 지역에서는 특히 효자에 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효에 대한 강박의식이 패턴화된 이야기로 반복되기도 한다.¹³⁾

12) 영동에는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다른 인근 지역보다 많다. 영동의 전설에는 신라와 백제와의 경합의 역사 경험이 녹아 있다. 삼국시대 전란 중 백제 군사의 심정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백제의 패망에 관한 안타까운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충북지역 전설 중에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치열한 국경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것이 상당수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과거사인 조선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가 많다는 일반적인 양상과는 달리 충북지역에는 삼국시대에 관한 오래된 기억이 전설을 통해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이효순, 『충북지역 전설에 나타난 삼국시대에 관한 기억과 그 흔적』, 『기호학연구』 61, 한국기호학회, 2020, 219~250쪽.

13) 음성군의 전설 중 특징으로 호랑이를 내세워 효자의 효행을 선양하는 이야기가 많은 특징이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효자 전설이 이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역 전설이 전승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자기 커뮤니케이션(auto-communication)의

인물을 지시대상으로 하는 인물 전설 가운데 충북지역에는 효자 전설이 많이 나타난다. 이때 효자 전설은 효라는 이념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강조 되는데, 이는 열이나 충, 선비정신과 같은 유교적 이념에 대한 의식이 강한 충북지역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외에도 충북지역 전설에서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과 찬양의 태도에서 보이는 ‘강조성’을 찾아볼 수 있다. 괴산이나 충주의 전설에 보이는 명산(名山)에 대한 자부심과 예찬, 명당(明堂)에 대한 강한 집착 등에서 이러한 ‘강조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진천의 경우 ‘생거진천(生居鎭川)’ 전설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많은 수가 전하지는 않지만 인과성과 지속성을 지표적 특성으로 갖는 전설들은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과성의 경우 지역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강렬했던 기억을 잘 보존하고 있다. 기인이나 괴인의 출현, 전쟁이나 악행 등의 이유로 지역의 대상이 소멸하게 되는 이야기는, 비록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지역민들에게 신이한 경험이나 주요 가치에 대한 교훈성으로 현재화되고 있다. 지역 동제나 산신제, 지역에서 유행한 속담이나 관용구 등에 관한 전설은 과거부터 계속되는 지역의 집단 의식, 규범, 관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3.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설화’로서의 전설

1) 기존 랜드마크 설화 선정 사례 분석

랜드마크는 ‘서 있는 위치나 다른 건물 등의 위치를 쉽게 알거나 판단할

형태로 생성되고 소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의 효자 전설은 단순히 전달되는 정보적 메시지가 아닌, 약호(code)로 기능하는 것이다.

오세정, 『전설의 정체성 재고와 연구방법 모색』, 『기호학연구』 52, 한국기호학회, 2017, 117~118쪽.

수 있는 건물 또는 표지'로,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지'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것처럼, '랜드마크 설화'란 특정한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설화이다. 랜드마크 설화는 그 개념상 그 지역의 공간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생활방식 등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특색, 곧 지역성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설화는 기존에도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예컨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¹⁴⁾에서는 충북지역 11개 시군에 대하여 항목별로 기술하면서 하위항목의 하나인 '설화 및 민요'에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설화들을 언급하였다.¹⁵⁾ 해당 설화들은 “널리 전승되고”, “다수 전해지고”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2017.(encykorea.aks.ac.kr)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술된 충북지역 11개 시군의 설화는 다음과 같다.
 단양군: 소금무지산전설, 도담삼봉전설, 선돌/선돌전설, 뱀굴전설, 사인암전설, 다자구할머니전설, 용소전설
 제천시: 박달재전설, 오누이바위전설, 금수산전설, 높다리전설, 학다리전설, 어우고개에 얽힌 전설, 자라소전설, 월악산신전설, 두무봉전설, 공전사전설, 의림지전설, 장수탑전설
 진천군: 김유신 인물전설·지명전설, 거북바위전설, 농다리전설, 궁골전설, 살구우물전설
 음성군: 생바위전설, 통골모기전설, 유월샘전설, 말무덤전설, 꽃너미고개 바람부처전설
 괴산군: 각연사전설, 말세우물전설, 김참판묘전설, 삼방리와 어래산전설, 백마산전설, 용소전설, 송시열신도비전설, 화양동전설
 증평군: 술바위전설, 동헌전설
 충주시: 자린고비전설, 수리산전설, 검은들전설, 주정들전설, 장지늪전설, 쿠구봉전설, 암소바위전설
 청주시: 주성전설, 남다리(남석교)전설, 가자골전설, 용막골전설, 전석골전설, (청원군) 구녀성전설, 대국터전설, 몽단이고개전설, 무너미고개전설, 쌀고을전설, 지네장터전설, 노고성전설
 보은군: 거북바위전설, 속곳바위전설, 세조의 피점과 관련된 전설, 좌월대전설, 쌀바위전설, 경업대전설, 최치원설화, 효자연못설화
 옥천군: 청석교전설, 청성면 산성의 오누이힘내기전설, 단혈전설, 홍수전설, 떠내려온 산 전설, 사찰연기설화, 송시열·김옥균 인물전설, 문바위와 장수발자국전설, 철봉산전설, 장군묘전설, 절골지명유래전설

등의 언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잘 알려진’ 혹은 ‘많이 발견되는’의 두 가지 기준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누구에게까지 잘 알려진 것이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얼마만큼 더 많이 발견되어야 하는가?’와 같이 그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지역 대표 설화를 선정하고 그 설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충북지역 전설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위해 실시한 해당 연구에서는 지역민의 전설에 대한 인지도, 전설의 증거물이나 배경, 인물 등이 지역과 맺고 있는 관계, 이야기 출처의 권위, 문화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문학적 형상화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¹⁶⁾ 지역 대표 설화를 선정하기 위한 좀 더 세밀한 조건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조건은 연역적 규칙보다는 귀납적 접근인 데다, 문화산업화라는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해야 하는 연구의 방향성 때문에 지역의 대표 설화 곧 ‘랜드마크 설화’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다고 보기에는 소략하다. 더욱이 충북 지역 전체가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인지도에 집중한 나머지 텍스트와 지역과의 밀착성의 정도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랜드마크 설화의 정의와 각 지역의 랜드마크 설화의 선정은 설화 연구

영동군: 아기장수설화, 장자못전설, 회생효전설, 소금장수이야기, 오누이힘내기전설, 박연·이서구·허적·성삼문·임경업 인물전설, 영동할미전설, 호충전설, 양산가전설, 영국사전설, 강선대전설, 천인성전설

16) 오세정·조택희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 대표 설화를 선정하고, 그 특징을 밝혔다.

제목	지역	특징
두꺼비의 보은 이야기	청주	1950년대 자료집에 소개, 전설의 배경이 되는 지명
박달과 금봉 이야기	제천	대중가요로 널리 알려짐, 지역 문화관광상품화 진행됨
신립장군 이야기	충주	탄금대 관련 전설 다수, 역사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짐
생겨진천 이야기	진천	지자체 공식적인 슬로건으로 활용, 비교적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짐
온달장군 이야기	단양	역사적 인물로 널리 알려짐, 지역 문화관광상품화 진행됨

오세정·조택희(2013), 앞의 책, 358~359쪽.

에 있어서 지역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며, 향후 문화산업에서의 활용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을 대표하는 설화, 잘 알려진 설화의 정의와 기준을 보완한 체계적인 랜드마크 설화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랜드마크의 개념과 정의에서 비롯하여 ‘랜드마크 설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랜드마크의 개념과 의의

랜드마크(landmark)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지’로 ‘지역민 혹은 지역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표현장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랜드마크에 관한 논의는 케빈 린치(Kevin Lynch)에서부터 심화하였는데, 그는 랜드마크를 현대 도시의 이미지성(imageability)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도시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보여주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¹⁷⁾

랜드마크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거나,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 그러한 대상물을 만들려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¹⁸⁾ 따라서 랜드마크는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 출현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 정체성 혹은 통합성을 부여하는 가시적인 대상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랜드마크는 당대의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그 형태와

17) 케빈 린치는 도시의 이미지성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로 길(path), 접경(edge), 구역(district), 노드(node), 랜드마크(landmark) 다섯 가지를 언급하였으며, 랜드마크를 인지하는 속성으로는 형태성, 대비성, 위치성, 가시성, 역사성, 의미성, 친숙성을 제시하였다.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1960, pp. 46~90.

18) 문종만, 『랜드마크와 20세기 도시계획-랜드마크의 상징적 변형과 도시계획에서의 함의』, 『인문과학』 63,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8쪽.

의미가 변화하였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랜드마크는 종교적 일체화 또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졌다. 성(城)이나 대성당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랜드마크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성은 권력자의 거주지이자 도시의 방어벽으로써, 교회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을 정신적으로 통일시키는 공간으로써 랜드마크의 지위를 획득하였다.¹⁹⁾ 따라서 이 시기의 랜드마크는 주변의 건물과 대비되는 수직성을 보이지만, 15~17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전과 다른 수평적이고 거대한 규모로 높이보다는 웅장함이 강조된다. 예컨대 베르사유 궁전은 거대한 형태를 통해 절대왕정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면서 민간인의 출입 또한 허용하여 공동성의 의미를 확대한 당대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여겨지는 것이다.²⁰⁾

세계가 흔히 말하는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랜드마크는 그 지역이 도시화(urbanization)에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도시다움’의 표지로 혹은 정치적 선전물로 사용되면서 점점 더 높고 웅장한 형태로 변한다. 이전 시기에 주요한 성격이었던 의사소통 공간으로서의 공동성은 약화되고, 국가의 기술력과 힘을 과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인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박람회에서 런던 세계박람회의 수정궁(crystal palace)을 뛰어넘고자 고심하여 만든 1,000피트 높이의 타워로 이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프랑스가 정치, 경제, 산업의 최강국임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은 실용적인 형태를 갖추었으나 개방성과 공공성은 약화 되었다는 평을 받는다.²¹⁾

이렇듯 랜드마크의 의미와 형태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지역의

19) 이수인·송대호, 『서구 도시사회의 주요건축물에 대한 랜드마크 의미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6), 대한건축학회지연협회, 2016, 121쪽.

20) 이수인·송대호(2016), 위의 논문, 121쪽.

21) 이수인·송대호(2016), 위의 논문, 126쪽.

가치를 내재하고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을 모으는 중심으로서 기능해왔음은 분명하다. 요컨대 랜드마크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장으로서 강력한 공동체 건설의 필수 요소이다.

지역의 가치를 담고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는 공시에 외부인들에게 지역의 위치를 알리는 기능을 수반한다. 따라서 랜드마크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인지도’와 ‘사회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발생적 특성이나 인지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발생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 랜드마크와 인위적 랜드마크로 구분할 수 있다.²²⁾ 자연발생적 랜드마크는 인간에 의하지 않고 자연에서 형성되어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말한다. 충북 보은의 속리산과 같이 산이나 바위, 강, 바다 등의 자연물이 이에 해당한다. 인위적 랜드마크는 자연적 랜드마크와 달리 인간에 의해 건축되고 조성된 인공물 등이 지역을 표시할 만한 것이 되는 경우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성이나 교회, 사원, 공공기관, 동상 등의 인공건축물 혹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산, 인공섬, 인공호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혹 개인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이 소유자의 부나 권력, 명예 등에 이끌려 소유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에서 나아가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

인지의 영향 정도에 따라서는 지역적인 랜드마크와 도시적인 랜드마크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공간 인지 기능이 우선되며 후자는 의미 연산 기능이 우선된다.²³⁾ 지역적인 랜드마크는 가시적 곧,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을 지녀 지역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를 말한다. 각 시군의 경계에 서 있는 마스코트 동상, 마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시청,

22) 박기관, 『랜드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지역랜드마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강원도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2), 경인행정학회, 2013, 63쪽.

23) 박기관(2013), 위의 논문, 63쪽.

도로의 이정표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도시적인 랜드마크는 상징성이 중시되어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랜드마크를 일컫는다. 예컨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이나 한국의 경복궁 등이 있다.

이러한 랜드마크를 케빈 린치는 상술한 것처럼 형태성, 대비성, 위치성, 가시성, 역사성, 의미성, 친숙성의 7가지로 설명하였다. 애플야드(Appleyard)는 형태, 가시성, 상징성을 언급하였으며, 해리슨과 하워드(Harrison & Howard)는 위치성, 외관, 의미성, 개인과의 관계성으로 랜드마크의 특성을 설명하였다.²⁴⁾ 정진우는 공유성, 구체성, 접근성, 편리성을 특성으로 설명하면서 공유성, 구체성, 접근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하였다. 이때 공유성은 ‘잘 알려진 것’, 구체성은 ‘식별되는 것’, 접근성은 ‘찾아가기 쉬운 것’을 의미한다.²⁵⁾ 정지호 등은 랜드마크의 특성을 기대적(magnus), 기적적(miracle), 가치적(meaning), 유희적(merrimen) 특성으로 구분하였다.²⁶⁾ 이들은 랜드마크에 4가지 특성 중 한 가지 이상만 있더라도, 이 요소가 도시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는 수준이 될 정도로 커야지만 랜드마크가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랜드마크는 형태도 다양할뿐더러 각각의 랜드마크가 함의하는 기능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랜드마크에 대한 논의에서는 랜드마크가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무엇이 ‘랜드마크’일 수 있는지를 찾고자 하였다. 이들은 부여한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형태적으로

24) Appleyard, "Why Buildings Are Known: A Predictive Tool for Architects and Planners", *Environment and behavior* 1(2), 1969, pp. 131~156.; Harrison, Howard, "The Role of Meaning in the Urban Image", *Environment and Behavior* 4(4), 1972, pp. 389~411.; 박기관, 위의 논문, 64쪽에서 재인용.

25) 정진우, 『경로전달에 있어서 랜드마크의 인지적 속성과 그 사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6(4),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1, 133~134쪽.

26) 정지호·김진숙·윤천성, 『랜드마크시점에서 본 도시의 브랜드 문화컨텐츠화』, 『뷰티산업연구』 7(2), 한국뷰티산업학회, 2013, 27~28쪽.

눈에 띄어야 하며, 공동체의 것이면서 그들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특성과 조건을 공유한다.

3) 랜드마크 설화의 특성과 충북지역 설화 분석

전설은 넓은 의미에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랜드마크는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을 위한 건축물’로 문화유적, 지역축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²⁷⁾ 전설에는 전승 집단인 지역민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전설은 ‘사회 공동체의 의미를 응축한 상징형식’이면서 ‘그 의미를 재생산하고 재해석’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전설을 랜드마크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전설은 그 지역의 구체적인 대상물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랜드마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특성이 ‘지역을 상징할 만한 수준이어야’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전설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만은 없다. 또한 전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시대상을 증거물로 하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지역적인 랜드마크의 특성을 띠지만, 전승 집단의 가치관이나 인식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닌 도시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면서 앞에서 살핀 전설의 지표성과 랜드마크의 속성을 고려할 때 랜드마크 설화는 가시성, 특이성, 사회성, 응집성, 군집성의 다섯 가지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가시성

랜드마크는 한 번 인식되면 잘 잊혀지지 않는다. ‘잘 잊혀지지 않는다’라

27) 박기관(2013), 앞의 논문, 74쪽.

는 것은 랜드마크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랜드마크를 통해 떠올리는 도시 혹은 지역의 이미지와도 연관된다. 잘 잊혀지지 않으므로 랜드마크는 그 일부가 변형되어도 처음 인식된 혹은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전설 또한 이야기 그 자체 혹은 전설을 통해 연상된 이미지가 한 번 각인되고서 쉽게 잊히지 않는다면, 그 전설에는 가시성이라는 랜드마크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설은 전승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덧붙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일부가 변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야기의 정황과 현실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야기와 함께 형성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다면 그 전설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가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신라 원성왕 대 통일신라의 중앙을 설정하기 위한 확인 방법으로 국토의 남북 극단부에서 건장한 두 남성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속도로 출발시켰더니 이곳에서 마주쳤다. 이곳에 표시하기 위해 탑을 세워 중앙탑이라고 이름 지었다. 흐르늘에서 안반내로 들어가는 탐평교의 탐평천을 반내(半川)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남북극단에서 반이 되는 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안반내는 오늘의 한반래(韓半來)의 옛 음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전설지』, 〈중앙탑 나. 중앙전설〉(중원군(지금의 충주시))

위 이야기는 지금의 충주시에 전하고 있는 중앙탑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중앙탑의 유래는 위처럼 국토의 중앙부를 찾고 그 자리에 탑을 세웠다는 설과 당시 그 지역에 왕기(王氣)가 있어 그 기운을 끊기 위해 세웠다는 설, 그리고 김생(金生, 711~?)이 세웠다는 설 총 3가지가 이 지역에 전해진다. 중앙탑의 유래를 둘러싼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앞선 두 가지의 이야기는 중앙탑의 공간 더 나아가 충주라는 지역이 국토의 지리적 중심지였으며 더 나아가 왕을 배출할 수 있는 지력(地力)을 지닌 신성한 공간임을 주장한다.

(2) 특이성

랜드마크는 잘 기억되는 것과 함께 유일해야 한다. 다른 지역과 해당 지역을 잘 구분하고, 해당 지역에서 기억되고 그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곧 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징과 형태, 혹은 의미가 유일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法宮)으로 경복궁이 가진 형태와 역사적 함의는 ‘경복궁’만이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구성하는 형태, 의미, 특징 가운데 하나 이상이 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겨질 때 특이성의 자질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랜드마크 설화의 특이성은 전설이 지시하는 증거물에서 찾을 수 있다. 전설은 증거물(지시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전설이 가진 서사가 특이하기 위해서는 전설이 지시하는 증거물이 특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여송이 조선의 부흥을 막기 위해 바위의 목을 쳤다는 이야기는 그 공간이 명당임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가시성을 내포하지만, 이 이야기는 전국 각지에서 ‘00바위’와 같은 표제로 다수 전해지므로 ‘유일무이한’ 이야기로서의 특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반면 건장한 두 남성이 동일동시에 출발하여 도착한 곳에 탐을 세우고 중앙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중앙탐설>은 충주 지역에만 있는 중앙탐이라는 특수한 증거물을 지시 대상으로 하여 특이한 서사가 구성되었으므로 특이성이라는 랜드마크적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제천의 의림지 전설 또한 특이성이라는 자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천의 한 부잣집에 스님이 시주를 청하였다. 탐욕스럽고 심술궂은 부잣집 주인은 스님에게 거름을 한 삽 퍼 주었다. 스님이 거름을 받고 돌아가려 하자 며느리가 한 바가지 쌀을 주며 시아버지의 잘못을 빌었다. 스님이 며느리에게 재해가 일어날 것이니 달아나되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쌀이

없어져 노한 주인은 며느리의 소행임을 알고 며느리를 광에 가두었다.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쳐 광 문이 열렸고, 며느리는 스님의 말에 따라 동북쪽 산골짜기로 도망쳤다. 아이와 남편이 생각나 뒤를 돌아보자 며느리의 몸이 돌로 변하였으며, 집이 있던 자리에는 물이 고였다. 그 집터가 지금의 의림지(義林池)이다. 『전설지』 〈義林池〉(제천시)

〈의림지〉 전설은 제천 지역의 의림지(義林池)라는 제천 지역의 대표 공간이 생겨난 이유에 관한 이야기로, 의림지라는 지명의 명명(命名)에 대한 한 가지 설과 공간의 형성에 대한 세 가지 설로 형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장자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장자못 설화 기원설이 주된 이야기로, 서사만 놓고 보면 광포 설화인 〈장자못 설화〉에 포함된다. 하지만 ‘의림지’라는 제천의 지역 공간을 지시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의림지 공간의 형성에 대한 또 다른 두 가지 설과 지명에 대한 설 곧, ‘신라의 우륵이 가야금을 벗 삼아 선유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것과 ‘박의림 현감이 저수지를 축조하고 그 이름을 따서 의림지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덧붙음으로써 지역 공간으로서의 ‘의림지’가 강조된다. 이로써 〈의림지〉 전설은 삼국시대에 형성된, 가장 오래된 저수지라는 제천 지역의 특수한 공간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설화로서의 위상 또한 가질 수 있다.

제천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거듭 손꼽혀 온 〈박달재 전설〉 또한 특이성이 강조된 제천 지역의 랜드마크 설화라고 할 수 있다. 백년가약을 약속하고 떠난 남성과 그를 기다리는 여성이라는 애정 관계, 결국 둘 다 죽어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 등은 이 지역에서만 전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애정 서사가 ‘박달재’라는 제천 지역의 특수한 지명을 가진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제천 지역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박달과 금봉이라는 구체적인 인물과 ‘박달재’라는 지역의 구체적인 공간이 결합하여 이 이야기는 비극적

인 애정 서사를 가진 제천 지역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3) 사회성

랜드마크는 지역을 대표할 만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회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지역 사회가 공유하는 문제의식, 특정한 가치나 그들이 겪은 역사적 경험 등이 반영되어 있다면 지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다. 예컨대 청주 지역의 <오산(오미)> 전설은 지역민들이 중시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전설로 청주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제 동성왕 대 고구려 첩자 지월이 인심을 살피러 이곳에 왔다가 우연히 다섯 명의 아이들이 스승을 모시고 글을 배우는 것을 보았다. 스승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을 묻자 아이가 어침없이 ‘충, 효, 신, 의, 성’이라고 대답하였다. 지월은 어린이들의 훌륭한 식견에 놀라 고구려로 돌아가서 본 것을 고하였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다섯 가지 행실을 터득한 곳이라고 하여 오미(五美)라고 전해진다. 『전설지』 <烏山(烏未)>(청원군)

위 전설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조건인 충, 효, 신의는 민가에서 생각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이다. 유교적 인간이야말로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인식은 이 지역이 유교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지금도 양반의 고장을 강조하는 충북 지역의 사상적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실제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역사적 기록과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역의 역사적 인식과 경험이 녹아든 부분으로, 역사적 기록과는 다르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역적 이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충주지역의 신립장군과 원혼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립장군 전설은 신립장군의 탄금대 전투의 패배 요인을 신립장군이 산 원혼에서 찾는다. 이는 역사 기록에서 빠져 있는 공백에 대한 지역민들의 상상력이면서 신립장군에 대한 지역민들의 가치평가, 나아가 탄금대 전투의 패배에 대한 지역의 역사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설이 랜드마크의 사회성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면 피 부병이 나아서 약샘이라고 부른다는 약샘 전설과 같이 이야기가 사라지고 흔적처럼 남은 것과는 달리 지역민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지,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면화하였는지 등이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4) 응집성

랜드마크는 지역민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민들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것으로 동의해야 하고, 모두가 함께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랜드마크는 지역민을 한곳에 모이게 하여 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임을 일깨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동성을 지닌 전설은 모두가 향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전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랜드마크의 공동성은 지역민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함께 수반해야 하므로, 공동성의 전설은 전설이 지시하는 대상이 현재까지 축적되거나 제의 등으로 지속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단양 대소면에서 경상도 풍기로 넘어가는 죽령고개는 험할 뿐 아니라 도둑 떼가 들끓었다. 이들은 밤낮으로 행패를 부렸는데 도둑들은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관아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때 도둑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긴 한 할머니가 도둑 잡기를 간청하고, 자기가 도적 떼에 들어가 ‘다자구야 다자구야하고 소리

를 내면 도둑들이 자고 있는 것이니 그때 도둑들을 잡으러 오면 될 것이라 하였다. 이후 할머니는 도적들을 속여 그들의 밥 짓는 일을 도왔고, 어느 날 대낮부터 술을 마신 도적들은 잠에 푹아떨어졌다. 할머니는 ‘다자구야 다자구야’ 노래로 외치고 도둑들을 모두 잡아냈으나, 할머니는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다자구 할머니라 부르고 이 할머니가 죽어서 죽령산신이 됐다고 믿고 있으며 사당을 세워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며 또 할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전설지』 〈죽령 산신당과 다자구 할머니〉(단양군)

위 이야기는 단양군에 전해지는 다자구할머니 전설로, 이 전설을 통해 지역민들은 당시의 혼란한 정황 속에서 다자구 할머니의 희생을 공감하고, 죽령산신의 존재를 이해한다. 이 이야기는 지역민들에게 죽령산신제와 다자구 노래의 연원을 알리고, 산신제와 가창 행위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이처럼 전설이 지역민들의 실제 행위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면서 지역민들의 행위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할 때 이 전설을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성을 자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증평의 〈장래천 수살 전설〉이나 진천의 〈농다리 전설〉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 군집성

앞서 살펴본 랜드마크적 특성과는 달리 군집성은 전설의 유형적인 부분과 관련된다. 유사한 구조를 지닌 다종의 텍스트가 있는 경우 하나의 전설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 군(群)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사회성과는 달리 구체적인 서사가 있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만 전해지는 다종의 설화가 있다면 그것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기능하는 군집성을 가진 전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충북지역에는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설 다음으로 삼국시대에 관한 전설이 많이 전한다.²⁸⁾ 특히 고구

려, 백제, 신라 모두가 시점으로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세 국가의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면모가 드러난다. 이때 삼국시대 전쟁 관련 전설은 '전설 유형'의 하나로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다. 삼국시대 전쟁과 관련한 전설을 통해 충북지역의 당시 위상과 충북지역민이 당대의 충북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곧 삼국시대에 관한 전설은 현재 지역민들의 충북지역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도 단위가 아니더라도 시군, 또는 그 하위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특정 유형의 이야기가 다수 분포한 설화군(群) 역시 그 지역(공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군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괴산 지역의 경우 충북지역 내 다른 시군에 비해 풍수지리, 명당(明堂)을 활용한 전설이 많다. 〈九舞亭 바위〉, 〈普光寺와 金參判 墓〉, 〈玉女峰과 효녀의 죽음〉, 〈玉女織錦〉 등이 그것인데, 〈九舞亭 바위〉는 이여송과 관련된 이야기로 특이하게도 이여송이 멀리서 본 명당을 결국은 찾지 못하였다고 끝맺는다. 〈普光寺와 金參判 墓〉, 〈玉女峰과 효녀의 죽음〉, 〈玉女織錦〉은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양갈음하는 이야기이다. 이상의 이야기는 명당이 많아 지리적으로 좋은 공간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원래는 좋은 곳이었으나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 파괴되어 흔적만 남았거나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특히 〈普光寺와 金參判 墓〉, 〈玉女峰과 효녀의 죽음〉, 〈玉女織錦〉은 이여송이라는 외부인에 의해 명당이 파괴된 이야기와는 달리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 사이의 갈등에 의해 파괴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충북의 다른 지역의 명당파괴 설화와 구분된다. 이러한 면에서 지역주민의 갈등에 의한 명당 파괴 전설은 괴산 지역의 군집성을 드러내는 랜드마크 설화라고 할 수 있겠다.

28) 이효순(2020), 앞의 논문, 221~222쪽.

이상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전설 곧 ‘랜드마크 설화’가 가질 수 있는 다섯 가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설화는 가시성, 특이성, 사회성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포함된다. 곧 지역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이야기가 지역을 각인하거나, 지역이 이야기를 각인함으로써 ‘지역의 이야기’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혹은 서사 또는 지시대상이 다른 지역의 이야기와 구별되어서 그 지역만의 특색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랜드마크적’이어서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나 가치가 텍스트에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이야기여야만 랜드마크 설화라고 할 수 있는 1차 조건이 충족되는 셈이다.

응집성은 특정한 가치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공동체의 장(場)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성을 기반으로 하는바, 응집성은 랜드마크 설화의 1차적 조건인 가시성, 특이성, 사회성과는 달리 이들과 결합하여 랜드마크 설화의 성격을 강화하는 특성을 띤다. 곧 현재의 지역민들에게 그 이야기가 ‘우리 지역이 향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현재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집성은 그 의의가 드러난다. 예컨대 단양의 <다자구 할머니 전설>이나 영동의 <영동할미 전설>은 과거 지역민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제의적 차원에서의 행위가 함께 수반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이야기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특성에 유의하여 『전설지』에 수록된 전설 가운데 충북지역 11개 시군의 랜드마크 설화가 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전설	랜드마크적 특성
단양군	소금무지산 전설	특이성
	도담삼봉 전설	가시성, 특이성
	다자구할머니 전설	가시성, 사회성, 응집성

제천시	의림지 전설	가시성, 특이성
	장수탑 전설	특이성, 가시성
진천군	김유신 전설	특이성
	농다리 전설	사회성, 응집성
음성군	유월샘 전설	사회성
	꽃너미고개 바람부처 전설	사회성, 응집성
괴산군	삼방리와 어래산 전설	가시성, 특이성
	송시열 신도비 전설	가시성, 사회성, 응집성
	명당 파괴 전설	특이성, 근집성
증평군	부처님의 영험 전설	사회성, 응집성
충주시	자린고비 전설	가시성, 특이성, 응집성
	중앙탑 전설	가시성, 특이성, 사회성
청주시 (청주청원)	주성 전설	가시성, 특이성
	대국터 전설	특이성, 사회성
	몽단잇개 전설	특이성, 사회성
	오산(오미) 전설	사회성
보은군	세조의 피접 관련 전설	가시성, 사회성, 근집성
	속리산 전설	가시성, 사회성
옥천군	문바위와 장수발자국 전설	특이성
	장군묘 전설	사회성
영동군	박연 전설	가시성, 특이성, 사회성
	영동할미 전설	사회성, 응집성

4. 결론

랜드마크 설화란 지역 전설을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지’인 랜드마크(landmark)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랜드마크 설화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야기’로 ‘지역의 특성’을 담보한 텍스트이다. 이때 ‘지역의 특성에 대한 담보’는 ‘랜드마크’의 특성과 맥락상 연결된다.

지역 전설은 그 지역에서 형성됨에 따라 지역의 가치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서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인정되고, 문화산업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일례가 충북 진천의 <생거진천 이야기>를 활용한 캐치프라이즈, 단양의 <온달장군 이야기>를 활용한 온달 축제이다.

이렇듯 지역 전설을 이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과 다르게,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야기는 다만 ‘잘 알려진’이나 ‘유명한’ 등과 같은 수식어가 해당 전설의 지역 대표 선별 기준이었다. ‘잘 알려진 이야기’ 또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자격 가운데 하나이지만, 지역문화로서의 전설 연구 방법론이나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설이 그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알려진 전설들이 갖추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이 마련되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증거물을 통해 전설이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형성되는 지표 기호적 자질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학·도시공학 등에서 사용하는 랜드마크의 개념을 활용하여 랜드마크 설화의 자질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충북지역 전설을 대상으로 하여 충북의 11개 시·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설화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랜드마크 설화의 특성을 가시성, 특이성, 사회성, 응집성, 군집성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과 위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설지』에 수록된 전설 가운데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설화가 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에서 전승되는 전설 자료를 어떤 시각과 방법론으로 연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역과 지역 문화 발전에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이후 작업은 현재까지의 결과물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적용이나 활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전설지』, 충청북도 문화공보담당관실, 1982, 1~670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2017. (encykorea.aks.ac.kr)
- 필립 뒤바, 『사진적 행위』, 이경률 역, 사진마실, 2005, 1~167쪽.
- 오세정·조택희, 『지역 전통 이야기 문학의 문화적 의미와 경제적 가치-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1~148쪽.
- 문중만, 「랜드 마크와 20세기 도시계획-랜드 마크의 상징적 변형과 도시계획에 서의 함의」, 『인문과학』 63,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5~34쪽.
- 박기관, 「랜드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지역랜드마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강원도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2), 경인행정학회, 2013, 61~78쪽.
- 서해숙, 「지역전설의 문학적 판타지와 문화 읽기-전남 보성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14, 태민국학연구원, 2014, 161~190쪽.
- 오세정, 「전설의 정체성 재고와 연구방법 모색」, 『기호학연구』 52, 한국기호학회, 2017, 97~122쪽.
- _____, 「지표성으로 본 한국 전설의 유형론」, 『구비문학연구』 5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39~68쪽.
- _____, 「충북지역 전설 연구: 자료, 분류, 분포의 특성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185~212쪽.
- 오세정·조택희, 「지역 설화 인식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화 방안 연구」, 『우리말글』 75, 우리말글학회, 2017, 353~382쪽.
- 윤승준, 「설화의 지역적 특성 연구와 설화문학지도: '231-1 모르면서 점장으로 성공' 유형의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39~80쪽.
- 이경률, 「현대 예술사전에 나타난 지표성과 그 존재론적 연구-퍼스의 지표론과 생성 존재론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33, 한국기호학회, 2012, 317~357쪽.
- 이수인·송대호, 「서구 도시사회의 주요건축물에 대한 랜드마크 의미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6),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2016, 119~126쪽.

- 이효순, 「충북지역 전설에 나타난 삼국시대에 관한 기억과 그 흔적」, 『기호학연구』 61, 한국기호학회, 2020, 219~250쪽.
- 정지호·김진숙·윤천성, 「랜드마크시점에서 본 도시의 브랜드 문화컨텐츠화」, 『뷰티산업연구』 7(2), 한국뷰티산업학회, 2013, 23~37쪽.
- 정진우, 「경로전달에 있어서 랜드마크의 인지적 속성과 그 사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6(4),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1, 127~135쪽.
- 주형일, 「사진의 지표성과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50(1), 2006, 355~377쪽.
- 최명환, 「현대의 지역축제와 전설-강원도 영월지역의 ‘단종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189~215쪽.

Göran Sonesson, “Post-photography and beyond: From mechanical reproduction to digital production”, *Visio*. 4(1), 1999, pp. 11~36.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1960, pp. 1~208.

ABSTRACT

A study of landmark folktales in Chungbuk Province

Lee, Hyo-sun · Oh, Se-jeong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a search for local values. In order to study legend as local culture and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a specific methodology for local cultural research should be prepared.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a landmark folktales in Chungbuk province by utilizing photography semiotics “characteristics of index”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s “landmark” theory in order to find a specific methodology for local literature research.

Landmark folktales see local legends as landmarks that represent or distinguish a region and highlight text that contains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landmark folktale is said to have five characteristics: visibility, uniqueness, characteristics of social valu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and characteristics of cluster. At least one characteristic and up to all five can appear in a single text. At this time, it can be said that a landmark-folktale can represent the region only when the text’s landmark characteristics are clearly revealed. Visibility, uniquenes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value are the primary requirements of landmark tales.

Last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ex and the landmark-folktale, based on the text *Jeonseolji*, which is a representative collection of legends in Chungbuk, a landmark-folktale representing each of Chungbuk province’s 11 cities and counties was selected and analyzed.

Key Words Chungbuk province, legend, landmark, landmark folktale, characteristics of index, locality

논문투고일 : 2020.10.15
심사완료일 : 2020.10.29
게재확정일 : 2020.11.11